

법 어

한일불교 문화교류협회의의 희망차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무루 동참해주신 회원종단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일불교 문화교류협회의는 1977년 이래로 35년간 양국의 돈독한 불교우호를 넘어 학술적, 문화적 교류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류의 역사만큼이나 깊은 신뢰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계승해 왔다는 것은, 두 나라는 물론 세계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불교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회원 여러분의 공덕으로 면면히 역할을 수행해 온 한일불교 문화교류협회의는 이제 시대의 변화와 사명에 당면해 있습니다. 첨단과 혁신적 네트워크라는 세기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불교계는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정신의 가치를 설파하고자 본연의 노력에 분주했으며, 이러한 역할과 사회적 실천은 시대의 요구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이를 발판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넘어서는 사찰간의 불교문화 교류 증진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인간 존중의 실현을 상호 비추어 견고한 발전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시대의 큰 흐름조차 찰라일 수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놓을 수 없기에, 새로운 원력을 가지고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분을 모시게 된 것은 더없이 즐거운 일이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 격려의 마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불교 문화교류협회의의 신도회장으로 취임하는 이희구 회장님은 그동안 제약계의 중요한 역할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 신행이 돈독한

불자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성취를 통하여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어줄 것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공심과 원력으로 한일불교 교류와 발전에 헌신의 마음을 내신 것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불도의 융성은 순전히 사람에 달려 있고 현재가 어려운 것은 실천에 지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성현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동안 지켜온 가치와 원력을 지켜가면서 한 마음으로 노력을 다한다면, 청아한 법향이 온 누리에 가득 차고 아름다운 연꽃이 만발하는 불국정토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취임하는 이희구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오늘 창립법회를 계기로 다시 시작이라는 서원으로 작은 성과라도 만족하면서 공심과 원력을 잃지 않고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양국 불교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에 불향이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불전에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2555년 12월 16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